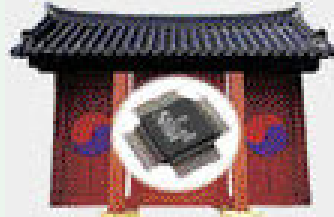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자 영원한 문화청년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73)은 늘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지난 1960년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역설한 '흙속에 저 바람속에'를 필두로, '신바람 문화'(70년대), '벽을 넘어서'(80년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90년대) 등 일련의 키워드들은 한 시대의 총체적 삶의 양식

을 바꾼 패러다임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6년, 이 전 장관은 '디지털로그가 희망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넘자'라는 새로운 명제로 또 한번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한다. 광주일보는 창사 54주년을 맞아 '디지털로그'를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와 시대정신을 들어봤다.



光州日報 제언
'디지털 디바이드'를 없애자

이제는 '디지털로그형 인간'이 희망이다

(디지털+아날로그)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인터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얼마전 '디지털로그 선언'이라는 책을 내셔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책을 판매하는 출판사가 바쁘지 제가 뭐 바빠요. 원고는 연초부터 모 신문에 연재했던 것이어서 책을 출간하는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보다는 '디지털로그'라는 개념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아날로그니, 디지털이니 하는 말 자체도 어려운데 '디지털로그'(Digilog)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거든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성한 신 개념이예요. 언제부터나 디지털 문화가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하면서 '기술'만 있고 '휴머니티'는 사라져 버린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비인간화, 탈가족화와 같은 폐해가 디지털 문명으로 인한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좀 더 들여다 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뚝 던져놓고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컴퓨터가 있는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목이 마르면 냉장고 문을 열고 주스를 마셔요. 냉장고가 있는 주방이 아날로그라고 하면 아이가 즐기는 인터넷 게임은 디지털세계인 셈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날로그세계에 살면서도 수시로 디지털 세상과 접속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아날로그 세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단절이 쌓이게 되면 가족해체,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정보격차)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방금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매스컴에서 계층간 양극화, 이념간 양극화나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정보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해 요즘 한국사회는 '이산가족 전국'이 됐어요. 무슨 말이면 디지털문명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과 그렇지 않은 세대들간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함께 살고 있을 뿐이지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채팅만해도 그래요. 남편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디지털 부인'과 사이버상에서 '밀어'(?)를 나누고, 현실에서는 '아날로그 부인' 이랑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두 부인이 함께 사는데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또한 세대간·도농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집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세대·계층간 벽 높아져
정보 격차 심각성 몰라
부모-자식 '한 지붕 딴 가족'**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는데 무슨 약을 써야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할 묘안은 없을까요?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지털로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 같은 디지털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비인간화, 탈가족화와 같은 폐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문명과 담을 쌓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이런 기술문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아날로그의 감성을 융합한 '디지털로그'입니다. 현대 문제는 디지털세대가 아날로그의 감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반해 아날로그세대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려면 아날로그 세대가 쉽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친인간형' 관련제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농도(農道)인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취약합니다. 이로 인한 도·농간



약력
(1998~2001년)
▲1993년 충남 출생
▲서울대 국문학과 및 대학원 졸업
▲에세이집 '흙속에 저 바람속에' 출간
▲이화여대 교수(1966~1989년)
▲평론집 '한국과 한국인' 출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1979년)
▲초대 문화부 장관(1990~1991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광주일보 창사 54주년을 맞아 본사 박진현 문화생활부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N-POOL 중앙일보=박종근 기자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려면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마을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많아 정보화 교육

라 개인의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주에 내려갈때마다 '광주다운 색깔'을 느끼지 못했어요. 대구를 가든, 전주를 가든,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향인 광주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말이죠. 도시의 건축물, 환경, 거리 등도 문화적 이야기 하지만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주만의 톤'이 있어야 해요. 물론 문화 마인드가 하루 아침에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미의식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
문화도시 광주시민이 융합
타도시들의 모델로 거듭나야**

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20~30가구를 단위로 그 지역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디지털 이장'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이장들로 하여금 마을 노인들이 도시의 자녀들과 이메일이나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최근 광주에서는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낙후된 문화인프라 등을 내세워 과연 광주가 문화수도가 될 자격이 있는냐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할까요?

▲흔히 그 도시가 '문화도시' '아니다'는 도시의 분위기, 시민들이 '문화적'이나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프랑스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부르는 줄 알니까. 바로 멋을 아는 시민들의 미의식 때문이예요. '파리지엠'들은 스카프 하나를 목에 두르더라도 확실하게 달라요. 미의식은 빈부(貧富)가 아니

-선생님께서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문화가 곧 경쟁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는 광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기에는 지자체 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안목과 소양을 갖추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광주시민들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계산적이고 각박한 서울사람들이 디지털형 인간, 다소 느리고 여유가 있는 충청도 사람들이 아날로그형이라고 한다면 광주는 이 두가지를 갖춘 '디지털로그 인간'에 가까워요. 다가올 후기 정보화 시대에는 '디지털로그 인간'이 희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광주는 한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정리=박진현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 새한철강

SAEHAN STEEL CO., LTD.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늘 고객과 함께 하는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 새한철강

새한철강 (株) 新韓鐵鋼

SAEHAN STEEL CO., LTD.

주요사업: 철강제품 생산, 판매, 수출, 해외사업

소재: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대표이사: 김기현

전화: 010-970-0000

팩스: 010-970-0000

홈페이지: www.sae-han.com